

日本心理學者들이 본 분트와 그의 實驗室

車 載 浩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분트 생전에 그의 강의를 듣고 실험실에서 연구한 일본의 心理學者 7명과 哲學者 1명이 본 대로의 분트의 강의, 분트의 실험실, 그리고 분트의 인품을 살펴 보았다. 이들이 쓴 글들은 분트 서거 직후 발표된 것으로 美國人弟子들의 글에 앞서 발표되었었다. 美國學者들이 보고한 인상은 해당되는 곳에 脚註에 표시하여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는 日本의 心理學者들의 글속에 나타난 분트(Wilhelm Wundt)와 그의 Leipzig 大學의 심리실험실에 관하여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분트는 1920년 8월 31일에 사망했는데 그의 88회 생일을 맞이한지 2주일만에 별세한 것이다(Watson, 1963). 이 글의 근거가 되는 日本心理學者들의 글들은 대부분이 日本의 心理學研究會가 발간한 心理研究라는 정기간행물의 1920년 9월호에서 11월호에 걸쳐 발표된 것들이다. 이들 글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분트가 1920년 사망하고 난 후 분트를 추모하기 위하여 씌어진 미국심리학자들의 글들(예: Judd, 1921; Titchener, 1921a; 1921b; Cattell, 1921)이 모두 1921년 이후에 발표되었던 것에 반해서 日本學者들이 쓴 글은 1920년에 씌어져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일본학자들의 글은 미국학자들의 글을 읽기 전에 씌어진 것이다.

분트에게서 직접 배운 일이 있는 日本心理學者는 7명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모두 日本文部省의 장학생으로 파견된 國費留學生들로서 당시의 日本政府는 대학교수가 될만한 대학의 조교를 거친, 고등학교의 교수들을 대학교수에의 任命에 앞서 미리 教授라는 명칭을 주어 약 3년간의 기간에 걸쳐 유학하게 했다.¹⁾ 여기서 참고한

글들을 쓴 사람들이 유학한 시기는 1880년대부터 1916년까지로서 가장 일찍 분트의 실험실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노지리(野尻精一)이고,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은 마쓰모도(松本亦太郎. 東京帝大心理學科 첫 卒業生으로 東京帝大교수 역임)이었는데 그는 1896년에서 1897년까지 일년 미국에 유학하고 나서 독일로 옮겨가 Leipzig에서 1년반 동안 공부했다.

1900년대 초에 들어와 Leipzig에서 공부한 사람으로는 가네코(金子馬治, 와세다大學교수 역임), 가와아이(川合貞一. 게이오大學교수 역임), 그리고 쓰카하라(塚原政次)의 3인이 있었는데 앞의 2명은 대략 1901년에서 1903년 사이에 독일에서 공부했고, 쓰카하라는 1902년부터 1년 반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Cattell(콜럼비아)에게서 배웠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 Leipzig에 갔던 사람으로는 1920년대에 東京帝大의 마쓰모도(松本)교수 아래에서 조교수를 지낸 구와다(桑田芳藏)가 있고 또 京都帝大교수를 역임한 노가미(野上俊夫. 東京帝大의 心理學科 두번째 졸업생)가 있었다. 전자는 1910년에서 1912년까지 3년간 그곳에 체재했고 후자는 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1년전인 1913년 8월에 독일로 들어가 Leipzig에 만 1년

1) 아직 교수가 아닌 젊은이들을 파송했다는 이야기

는 李義喆명예 교수(서울大)가 원자에게 들려 주신 것이다.

머물다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을 거쳐 1916년 9월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이들 7명중 3명이 1920년 당시(글을 썼을 당시)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마쓰모토(松本), 쓰카하라(塚原), 그리고 노가미(野上)의 세 사람이었다. 이들이 독일에 체재한 기간이 모두 1년 반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중 누구도 분트에게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이 당시 3년간 유학하던 모습을 한 사람의 예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장 늦게 Leipzig를 찾은 노가미(野上)의 경우를 보면, 그는 1913년 8월 일본을 떠나 먼저 시베리아철도로 러시아로 들어갔다. 그곳을 경유하여 1913년 8월 23일 독일에 들어갔고 그곳에 만 1년을 머물렀다. Leipzig에만 머물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해 10월 말경에 시작한 겨울학기를 그곳에서 지난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 해인 1914년 8월에는 프랑스를 경유, 영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10개월을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와 여기에 2개월, 스위스에서 2개월, 그리고 이태리에서 2개월 차례로 머물렀다. 그 다음 1916년 초에는 다시 프랑스 파리로 가서 약 5개월 머문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그해 8월 말까지 있다가 시애틀(Seattle)에서 배편으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때가 9월 말쯤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0월 7일에 京都大의 心理學讀書會가 그의 歸國 회영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心理學研究會, 1916, p. 744). 이들 유학생들 중 상당수 또는 전부가 유럽과 미국 양쪽을 모두 볼 기회가 있어 양쪽 대륙에서의 심리학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극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마쓰모토는 미국에서 분트의 제자인 에일대학의 Scripture에게서 1년 반, 독일 Leipzig에서 1년 반쯤 공부했고, 쓰카하라는 먼저 독일(Leipzig)에서 1년 반을 배우고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분트의 소개로 분트의 제자인 콜롬비아대학의 Cattell에게서 1년 반동안 공부를 계속했다. 노가미(野上)는 독일에 1년있고 유럽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보았고 마지막에는 미국에도 7개월 가량 있었다.

1920년의 일본에는 분트에게서 직접 배운 사

람이 위에서 본 것처럼 7명이 있었지만 분트의 미국인 제자에게서 공부한 日本心理學者도 마쓰모토와 쓰카하라를 제외하고도 7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1920년 당시 독일과 미국에서 직접 분트에게서 또는 분트의 제자에게서 공부하고 돌아온 심리학자가 日本에는 모두 최소한 14명이 있는 셈이 된다. 당시 Berlin대학의 形態主義心理學을 공부하고 돌아와 있었던 학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의 토대가 된 10편의 글속에는 形態主義心理學이란 말이나 形態主義心理學의 주역들의 이름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분트에 초점을 맞춘 글이므로 形態主義心理學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들 글중 분트의 “학문체제”를 다룬 글들도 있으므로 당시 막 모습을 나타낸 形態主義心理學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언급을 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다른 학과가 언급되고 있는 글귀가 나왔을 경우에도 形態主義의 언급은 빠져있음을 본다(가령 구와다는 한곳에서 “그가 건설한 構成的心理學 意識의 學門에 대해서는 여러 비평이 존재하고 또 불충분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機能主義, 行動主義, 客觀心理 등이 있지만……(桑田, 1920, p. 390)”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形態主義가 빠져 있다). 形態主義와의 접촉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은 第一次世界大戰(1914-1918) 때문에 일시적으로 독일과 일본간의 학문적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분트를 찾아가 공부한 日本學者는 心理學者만은 아니었다.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분트에게서 배웠는데, 이들중에는 일본의 心理學者들보다 앞서서 분트에게 배운 사람으로 이노우에(井上哲次郎)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885년 겨울학기에 분트의 강의를 들었는데 1885년이라면 분트가 53세이던 때이다.

일본의 心理學者들이 분트를 만난 것은 일러야 1880년대 말이므로 분트가 50대말에 있을 때였다. 가장 늦게 분트를 찾은 사람(노가미)은 분트가 82세 때에, 즉 사망하기 6년전까지 그를 보았다. 일본의 심리학자들중 첫번째 유학생이 Leipzig를 찾았을 때 분트는 그곳에 부임한

지 15년이 지난 뒤이었다(Wundt가 Leipzig에 교수로 부임한 것은 1875년으로 그 때 그는 43세의 한창 나이였다).

다음에 日本心理學者들 그리고 한명의 철학자가 본래로의 (1)분트의 강의, (2)분트의 심리실험실, 그리고 (3)분트의 인품과 성격에 관하여 적어 보기로 하겠다. 脚註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미국심리학자들의 인상이나 의견을 표시하여 두었다. 분트의 생애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趙明翰(1979)이 소개해 놓은 것이 있다.

I. 분트의 강의

분트의 Leipzig 시절의 일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오전중에는 Goethe 6번지에 있는自宅에서 연구나 저술을 하고 점심을 끝낸 후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어김없이 집을 나서 알버트 공원으로 가는 가로수가 있는 거리를 약 1시간 가량 산보하고 나서 대학으로 가는데 오후 3시 20분에 정확히 강의를 시작 4시 정각에 끝냈다.²⁾ 독일에서 1시간 강의란 Akademische Zeit라 하여 40분 강의를 의미했다(塚原, 1920, p. 374). 쓰까하라(塚原)보다 8년 뒤인 1913년에 Leipzig에 도착한 노가미(野上)는 분트의 강의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있었다고 적고 있다(野上, 1914, p. 490). 노가미는 현지에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착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적다. 당시 독일 대학에서는 大家는 지별 늦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桑田, 1920).

강의가 없는 날에는 오후 3시부터 1-2시간 동안(1902년 무렵) 실험실에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바로 옆에 붙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생을 면담했다. 오후 5시쯤에는 집에 돌아와 다시 연구했다(塚原, 1920).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1시간 동안 학생과의 면담으로 시간을 보냈다(桑田, 1920,

p.387)³⁾ 이런 버릇 즉 강의후 학생면담의 시간을 보내는 일정은 1913년 경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던 모양으로 노가미는 그가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과 실험실에 인접해 있는 자기의 연구실로 가서 학생이나 다른 사람과 면담을 하고 실제로 같은 층에 있는 여러 실험실에 들르는 일은 기이 없었다고 쓰고 있다. 실험실에 잘 들르지 않은 것은 그가 노새한테다가 눈이 좋지 않아서 있을 것이라고 노가미는 말하고 있다(野上, 1914, p. 490).⁴⁾

분트가 78才이던 무렵인 1910년대 초에 분트는 4가지의 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넷을 4학기, 즉 2년에 걸쳐 하는데 哲學史(前半), 心理學(一般), 哲學史(後半), 그리고 民俗心理學(Völkerpsychologie)를 한 학기에 한 강좌씩이 순서로 해나갔다. 民俗心理學의 강의는 1911년 여름학기에 처음으로 개설한 것으로 수년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인 모양이다.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一般心理學의 강의는 실험조교였던 Wirth에게 맡겼다(桑田, 1920). 이보다 10년쯤 전(70才 때)에는 一般心理學과 哲學史(近世哲學史)를 강의했던 모양이다(塚原, 1920). 쓰까하라의 1년 반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단 한 번의 휴강도 없었는데 그것은 비단 분트에 한한 것은 아니었다고 적고 있었다. 1910년대에 哲學史를 2학기에 나누어 강의한데 반해 一般心理學은 한 학기만 강의한 것을 보면 분트가 말년까지도 철학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노가미의 현지보고에도 1912년 겨울학기(그 해 10월말 시작)에 心理學入門, 心理學原論,

2) 분트의 강의시간에 관하여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령 1890년대 중반 제 2차 주소에 실험실이 있을 당시 공부한 Judd는 분트의 강의가 오후 4시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겨울철에는 일찍 어두어지니까 강의가 완전히 어두어진 후에 하게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Judd, 1921).

3) 어떤 보고에는 분트가 오후에 집에서 나오면 일단 학교에 들러 시험에 참석하거나 실험실을 둘러 보고 그리고 나서 산보하고 강의하고 난 다음 두번째로 다시 실험실에 들른다고 되어 있다(Titchener, 1921a). Judd는 Wundt가 오후에 집을 나와 산보하고 시험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실험실에 들른다고 적고 있다(Judd, 1921).

4) 훨씬 젊었을 때도 분트는 실험실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Cattell(1928)은 분트가 실험실에 들르는 것은 고작 5분에서 10분정도에 불과했으며 그래서 Cattell은 분트가 실험심리학의 적극적 옹호자이긴 하지만 그 자신은 실험연구가는 아닌가 보다하고 생각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兒童心理學, 그리고 意志心理學 등 4개의 심리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는데(실험연습이나 실습을 제외), 분트는 이들의 어느 것도 맡지 않고 近世哲學史만을 강의했다(野上, 1913, p. 489). 그러나 그 다음 학기인 1913년의 여름학기(4월 시작)에는 “心理學”(一般心理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됨)을 맡아 주당 4시간 강의를 했다.

쓰까하라가 있던 1902년 무렵에 분트는 한 강좌를 강의하는데 주당 3시간(3일)씩 했던 모양이다(塚原, 1920). 한편 구와다는 그가 주당 3-4시간 강의했다고 적고 있다(桑田, 1920, p. 387). 구와다는 1910년에 유학했으므로, 즉 쓰까하라보다 8년 뒤에 유학했으므로 분트의 강의시간이 약간 후년에 가서 더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물론 쓰까하라의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는 1913년 Leipzig의 현지에서 보고한 노가미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 그는 분트가 1912년 가을학기에 近世哲學史를 주당 4시간 강의했으니 다음해 여름학기에 그가 맡은 “心理學”도 주당 4시간이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野上, 1913).

같은 강의라 하지만 분트의 강의는 다른 강의를에 비해 비중이 컸었던 것 같다. 1913년 겨울학기에 心理學入門을 私講師 Brahn이 담당했는데 주당 3시간, 心理學原講은 心理學研究室의 助教授인 Dittrich가 담당했는데 주당 2시간, 兒童心理學은 私講師 Brahn이 담당했는데 주당 1시간, 그리고 意志心理學은 助教授이고 副主任教授인 Wirth가 맡았는데 주당 1시간이었다. 그런데 분트의 近世哲學史는 주당 4시간이었다. 그만큼 분트의 강의는 많은 시간이 할당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副主任인 Writh의 담당시간이 주당 1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실험실의 감독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나, 그러나 그는 정식 實驗演習講義나 特殊實驗研究는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중 前者는 강사 Klemm과 주수 Sander가 나누어 맡고 있었다. 다음 해 여름학기에는 “心理學” 民俗(民族)心理學, 그리고 言語心理演習의 3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분트가 맡은 心理學은 주당 4시간, Klemm이 담당한 民俗心理學은 주당 1시간, 그리고 Dittrich가 맡은

言語心理演習도 주당 1시간이었다. 분트의 강의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과운데 분트만이 정교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학기에 副主任 Wirth와 私講師 Brahn은 심리학 강의는 맡지 않고 있는데 Wirth는 “哲學 및 論理學入門”을 주당 4시간 강의했고, Brahn은 “自然科學의 주요한 結果”를 주당 1시간씩 강의했다. 분트가 맡은 강의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그의 강의실은 대학 건물 3층 정면에 있는 계단식 강의실(그림 1의 방A)이었는데 수강생은 언제나 200명을 넘어(1902년 경) 만원이었고도 강하는 학생이나 외부 청강자가 많을 때는 늦게 들어가면 뒷편에 서서 강의를 들어야 했다(塚原, 1920)⁵⁾ 구와다(桑田, 1920)는 그가 있을 당시 분트의 一般心理學의 강의가 있던 강의실은 거의 만원이었다 한다. 분트는 그의 다른 강의도 이 교실에서 강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나 490명을 수용하는 이 대형 강의실이 거의 차거나 만원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특히, 1911년 처음으로 民俗心理學강의를 개설했을 때는 一般心理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청중이 몰려 강단의 주변과 좌석사이의 통로도 꽉 메웠다. 民俗心理學강의에서도 특히 宗教問題와 같은 것을 다룰 때 청중이 많았다 한다(桑田, 1920). 1914년 노가미가 분트의 近世哲學史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대형 강의실에 청중이 입주의 여지 없이 들어차 강단 양 옆의 공간에도 서서 청강할 정도이었다고 한다(野上, 1914)⁶⁾ 분트의 대형

5) 심리 실험실의 一次건물인 Konviktgebäude에서 200-300명의 청강자가 분트의 강의에 들어왔던 모양이다(Cattell, 1921; Pace, 1921). 실험실이 3차건물로 이사하고 난 뒤인 1906년에 분트에게 그의 대형 계단식 강의실에 청강자가 가득차, 일부는 서서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Baldwin(1921)은 그 학생수가 약 “200명”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은 490명 수용의 강의실이었다. 그러므로 쓰까하라(塚原, 1920)의 그리고 Baldwin의 200명 이상이란 계산은 틀린 주장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6) 노가미는 그의 귀국보고(心理學研究會, 1916, p. 746)에서 대형강의실은 “500-600명 가량”을 수용하는 크기로 분트의 강의때에는 만장 입주의 이치가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강의실(그림 1의 A로서 대형 계단식 강의실)은 암실장치가 되어 있었고 교단위의 교탁은 실험강의용으로 된 것으로서 水道, 개스, 그리고 電氣의 配設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心理學의 강의를 할 때는 가끔 실험의 시범을 하는데 그때에는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그런데 그런 시범도 아주 교묘하게 잘 하였다(塚原, 1920). 분트의 강의하는 태도는 단상에 올라서면 내내 강의실 왼쪽 윗편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한다(桑田, 1920). 노가미(野上, 1914)는 이것이 분트의 눈이 나빠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 강의실에 자리를 잡을 때는 분트가 바라보는 쪽에 잡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손을 움직여 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교단 위에서 양손을 주먹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양이⁸⁾ 마치 요술장이가 주먹안에서 무엇을 끄집어 내는 것 같은 시늉을 한다(桑田, 1920). 노가미(野上, 1914)는 그가 양손을 약간 신경질적으로 연신 움직이며 이야기 했다고 전하고 있다. 강의 중에는 가끔 농담을 섞어 학생들을 웃겼다(川合, 1920; 井上, 1920; 桑田, 1920; 野上, 1914). 이것은 80세가 훨씬 넘어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강의할 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을 분명히 약간 천천히 하고 문장과 문장을 또박또박 떼어 이야기하여 아주 뒷쪽에서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⁹⁾ 낮은 목소리이지만 강조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川合, 1920, p. 387). 목소리를 높일 때는 약간 떨림이 느껴

지는 것이었으나 이런 분트를 관찰했을 때 분트는 70세가 된 무렵이었다. 어떤 강의를 밖에서 그의 목소리와 손을 상당히 떨렸던 것 같다. 그러나 일단 강단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손이나 목소리를 떠는 일이 없이 힘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塚原, 1920). 목소리는 크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힘이 들어 있었고 막힘이 없이 도도히 이끌어 가는 말솜씨는 강의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연설조로 들렸던 모양이다(川合, 1920; 塚原, 1920). 분트의 강의를 들은 일본학도들은 모두 분트의 말이 명료하여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강의 듣는 것이 기분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塚原, 1920; 野尻, 1920; 野上, 1914)¹⁰⁾

분트는 웅변조로 이야기하다가 신이나면 농담을 하여 학생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럴때면 학생들은 독일대학의 관습에 따라 구두로 강의실 바닥을 일제히 울러 갈채를 보냈다.¹¹⁾ 그렇게 되면 강의실은 무척 시끄럽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 하면 분트는 더 신나했다(塚原, 1920). 노가미(野上, 1914)는 분트가 1914년 어느 날 철학사 강의에서 Leibnitz에 관해 말하면서 “Leibnitz는 神童으로서 大成한 드문 예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학생들을 웃겼다한다(p. 490). 또 한번은 聯想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聯想辭典”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말해 학생들을 웃겼다(川合, 1920). 분트는 강의할 때는 쪽지시 했는데 메모 종이 두어 장에 약간의 메모만 해와서 그것만을 의지하여 강의를 했다(川合, 1920; 塚原, 1920).

心理學(一般心理學)강의는 특히 분트가 잘 한 것으로 실험시범까지 끼여 있어 꽤 재미있는 것이었다. 또 예도 자세히 들어 주었다. 강의는 분트의 Grundzüge 보다 쉬운 말을 써서 했는데(塚

Warren (1921)도 그가 언제나 흑색 프록코트를 걸치고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거리에 나면 꼴사나운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녔다. 이것은 그가 60세 경의 이야기이다. Tawney (1921)는 그가 이 무렵 까망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 양복을 보통 입고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다.

- 8) 분트의 강의하는 모습을 Titchener (1921b), Judd (1921), Tawney (1921), Baldwin (1921), Pace (1921) 등이 말한 것이 있다. 분트의 손짓은 Titchener (1921b)와 F. Angell (1921)도 언급하고 있다.
- 9) Titchener (1921b)는 분트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약간 약하고 목청이 높은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이지만 몇마디하고 난 후 강의실이 조용해지면 연기가 들어 있는 풍부한 저음의 목소리로 끝까지 강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10) 분트의 강의의 명석함은 여러 미국 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Patrick, 1921; Judd, 1921; Pinter, 1921; Hall, 1921).

11) 1914년 Leipzig에서 강의하던 다른 교수들에게 대해서도 노가미(心理學硏究會, 1916, pp. 744-747)는 평을 하고 있는데 분트의 후계자로 간주되는 副主任 Wirth의 강의는 분명치 못하고, 助教授 Dittrich는 주로 言語心理學에 몰두하고 있으며, Klemm은 앞서 “心理學”을 펴냈는데 아직 젊고 두뇌가 명석하다라고 귀국보고에서 말하고 있다.

原, 1920, p.376) 아마 1896년에 나온 *Grundriss* (心理學概論)를 토대로 했던 것 같다.

분트는 강의중에 심심치 않게 他學者의 이론이나 저서를 비평하거나 공격한 듯 하다. 이럴 때는 약간 이빨을 들어 내고 웃는 얼굴이 되는데 그 모습이 꽤 빈정거리는 표정이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가령 한때(1900년대 초) 哲學史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참고서를 불러주다가 *Windelband*의 近世哲學史책에 이르러서는 이 책을 一般文化와 特殊科學과의 관계에서의 近世哲學의 歷史를 서술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책목에서만 그렇다 (Das steht nur auf dem Titel)” 이라고 비꼬으면서 그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川畚, 1920, p. 383). 어쨌든 그는 강의에서 비양 거리는 일인 많았던 것 같다(井上, 1920). 그리고 敵手를 공격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다. 대개는 자기의 학설을 세울 때는 먼저 현존하는 說들을 비판하고 나서 자기의 說을 천천히 내세우는데 그의 적수의 說을 공격할 때 만은 냉정한 그답지 않게 약간 감정적으로 되어 어떤 때는 적수를 우롱하고 어떤 때는 사정없이 공박하기도 했다(桑田, 1920, p. 389).

II. 분트의 實驗室

1910년대 초에 Leipzig에 있던 분트의 심리 실험실은 그가 강의를 하던 대형 계단식 강의실이 있던 대학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인 3층에 자리잡고 있었다(桑田, 1920). 대형 강의실도 같은 3층에 있었다(그림 1 참조)¹²⁾ 이 15개의 방

12) 이 실험실은 세번째 실험실로 1896년 Leipzig 대학이 새 건물을 짓고 이사왔을 때 얻은 것이다. 제 1차 장소는 신축하기 전에 쓰던 대학 기숙사 (Konviktgebäude)에 있던 것으로 1875년에서 1889년 까지 연구소가 있던 장소이다. 대학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임시장소로 Grimmaischer Steinweg 12번지에 있는 집의 2층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1889년의 일이다. 제 3차 장소인 현 위치로 이사는 것은 1896년 가을의 일이다. 제 1차 장소에서는 처음 방이 1개이었으나 5개로 늘어났고, 제 2차 장소인 임시장소에서는 11개까지 방이 늘어났고, 제 3차 장소에서는 강의실 2개를 제외하고도 방이 15개가 있었다(Wundt, 1910).

으로 구성된 심리실험실의 방 6, 15, 14, 그리고 13의 4개실은 동쪽을 향하고 그 아래에는 大學街라는 통행이 빈번한 거리에 접해 있었다. 1914년 무렵에는 합승자동차의 통로가 되어 무척 시끄럽고 때로는 대학의 石造建물이 흔들릴 정도였다(野上, 1914). 당시 일본의 東京帝大나 京都帝大의 심리학실험실은 독자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Leipzig의 것은 대학건물 두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3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野上, 1914).

방 14는 圖書室이었는데 노가미에 의하면 이 도서실에는 1914년 당시 東京帝大의 도서실에 있는 장서량의 약 2배가량의 책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 독일책뿐이고 외국서적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이 방의 동쪽과 남쪽에 서가가 놓여 있었는데 남쪽 벽에는 Weber의 사진이, 북쪽 벽에는 Fechner의 사진이, 그리고 이 사진 아래에는 박사학위 취득 50주년 축하기념으로 만든 분트의 흉상의 浮彫가 걸려 있었다(野上, 1914).

1902년 경의 분트의 실험실은 유럽에서는 Berlin대학의 그것과 나란히 꽤 좋은 것이었는데 이 두 실험실만한 실험실은 유럽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었다(塚原, 1920). 그렇다고 시설이 꼭 좋았던 것도 아니다. 실험기구는 상당히 구식이어서 그 당시로서는 역사적인 고물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기구는 몇개에 불과했다. Leipzig와 Berlin의 두 실험실 설비는 당시 미국의 유명대학들, 가령 “콜럼비아, 코넬, 예일, 하바드 등의 심리학 실험실 시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었다”(塚原, 1920, p. 383). 1880년대 중반에 Leipzig를 찾았던 일본의 철학자 이노우에(井上)도 당시 분트의 실험실이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井上, 1920, p.461)¹³⁾ 물론 이노우에가 말하는 실험실은 쓰까하리(塚原)

13) 노가미는 1916년 10월에 있었던 東京帝大에서의 귀국보고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유학에서 얻은 결론을 피력하고 있다(心理學研究會, 1916): “歐米심리학실험시설을 보고 느꼈는데 東大 京大의 실험실 설비나 건물이 뒤지지 않으며 그로부터 배울 점이 이세는 없다. 시설이나 연구능력에서 우리는 외국과 겨이 같은 선에 와 있다. 그러므로 공연히 외국연구에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다(p.747).”

가 본 실험실이 아니다. 이노우에가 본 것은 第一次 주소에 있던 실험시설이고 쓰까하라가 본 것은 第三次 주소에 있던 실험시설이다. 노가미도 1914년에 방문하여 이 실험실을 보고 “東京이나 京都의 實驗室에서 와서는 놀랄만한 것은 한가지도 없다”라고 그 인상을 일본어로 적어 보냈다(野上, 1914, p. 74). 분트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3층에 있는 실험실이나 강의실을 찾아 매일같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렸던 것이다(桑田, 1920). 1914년경에 분트는 오후 5시에서 6시 까지의 강의(주 4회)를 마치면 3층의 자기 연구실에서 학생과의 면담을 하지만 3층에 있는 다른 방이나 실험실에 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82세가 된 분트의 눈이 좋지 않은 것이 한 이유였지만 이방은 실험실의 직원은 主任인 Wirth 교수가 맡고 있었다(野上, 1914).

1902년 무렵에 분트의 실험실에는 2명의 助手가 일하고 있었는데 第一助手가 Wirth 박사(Doktor Wirth)이었고 第二助手가 F. Krüger(Doktor Krüger)이었다.¹⁴⁾ 이 실험실에는 아무나 학생이면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실험실의 室員(室員)이 되어야 하는데 室員을 Mitglied라 불렀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트를 직접 만나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¹⁵⁾ 논문통과 여부가 전적으로 분트 한 사람의 관성에 달려 있었듯이 실험실 출입자기도 그의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塚原, 1920, p. 377). 구와다(桑田)같은 사람은 독일에 도착하여 1개월이 지난 뒤 어느날 강의가 끝난 직후에 분트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첫인사를 드렸다. 그 때 그의 연구실은 앞서 말한대로 실험실의 어느 한 편에 위치했었던 것 같다. 전처럼 북도처럼 생긴 방으로(그림 1의 방 3) 이 방의 창가에 책상을 놓고 있

었는데 보기에 그는 마음씨 좋은 노인의 인상을 풍겼다 한다. 구와다는 실험실의 실원으로 허락해 달라고 청했더니 분트는 좀 더 독일어 공부를 한 뒤에 다시 보자고 허락치 않았다(桑田, 1920, p. 386). 그 당시 구와다는 자신이 일본식 독일어 밖에 못해서 분트의 말에 상당히 빗나간 뚱뚱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1902년 무렵) 하나는 實驗演習講義로 실험초보자들에게 실험기계장치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였다. 이 강의는 Wirth나 Krüger가 담당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을 겸한 강의에 그쳤고 학생이 기구를 가지고 직접 조작 연습을 하지는 못했다. 이 강의는 1902년 당시 대학기에 10명 정도가 들었는데 12명을 넘는 적이 없었다 한다(塚原, 1920, p. 378). 이것도 하나의 강의로 본다면 1911년(이 해 여름에 民俗心理學의 강의를 개설되었다)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4개의 강좌가 있었던 셈이다. 즉, 哲學史강의 2개, 一般心理學강의, 그리고 實驗演習이 그것이다. 1914년 무렵에는 實驗演習도 2개로 세분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해에 感覺쪽은 강사 Klemm이 담당하고 感情쪽은 助手인 Sander가 담당했다(野上, 1914). 이것들은 각각 2시간씩 주1회로 2개를 합쳐서 주당 4시간의 實驗演習이 있는 셈이다. 시간수로 보아 實驗演習이 2개의 演習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당시만 해도(Wundt, 1910) 實驗演習은 주1회로 2시간 강의로 운영되고 있었고 助手 2명중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했었다. 어쨌든 1913-1914년 겨울학기에는 이 實驗演習은 포함해서 모두 6개의 강의(心理學概論, 心理學原論, 兒童心理學, 意志心理學, 그리고 近世哲學史)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 학기에 분트는 近世哲學史를 강의했다(野上, 1914).

實驗演習의 강의 이외에 特別實驗研究가 이 실험실에서 행해졌는데 이것은 학생 각자가 분트의 허락을 받아 하는 것으로 一學期에 끝나는 일일 없고 2學期나 3學期나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런 실험에서는 室員 각자가 서로 피험자가 되어 他연구자를 도와주곤 하였다(塚原, 1920).

14) Wirth는 1900년에, 그리고 Krüger는 1902년에, 助手가 되었다. Wirth는 1908년에 분트 연구실의 助教授가 되고 Krüger는 1906년까지 助手로 있다가 뒤에 Halle大學校의 교수가 되었다. Krüger의 助手후임으로는 Wundt에게서 박사학위를 한 O. Klemm이 왔다(Wundt, 1910).

15) 연구실원이 실험실 열쇠를 얻으려면 분트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약 1마르크 정도의 보충금을 내고 얻어야 했다(Pintner, 1921, p. 187).

1913-1914년 겨울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노가미(野上)는 다른 36명의 Mitglied와 함께 실험실을 여는 첫날(1913년 10월 29일) 실험실의 한 방(그림 1의 방 6)에 집합하였는데 먼저 분트가 일동에 대해 잠깐 말이 있고 곧 실험의 조를 짰다. 연구중에 있는 실험주제는 10개가 있었는데 각자의 관심에 따라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라 주제를 골라 잡되 1개, 2개, 또는 3개의 연구주제에 가담한다. 한 주제에 몇사람씩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最高參者가 연구의 책임자가 된다(野上, 1914). 분트의 실험실의 운영방식은 좀 피상한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실험실은 오전에는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02년 무렵에는 반드시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실험실 사용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쓰까하라(塚原)와 같은 일본 학생은 여러차례에 걸쳐 Krüger와 같은 조수에게 왜 오전에는 문을 열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 모양이지만 그때 마다 분트교수의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답밖에 얻지 못하였다. 오전에는 실험실만 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도 출입이 안되었다(塚原, 1920, p.380).

약 10년 뒤인 1914년에 노가미(野上)도 왜 오전에는 안 여는가 하고 副主任 교수인 Wirth에게 물었지만 별반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의 분트의 전통이라고만 말했다 한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잔혹 특정한 경우에는 오전에 실험하는 사람도 있었다(野上, 1914).

분트는 1883년부터 1903년까지 *Philosophische Studien*이란 학술지를 발간하여(20년까지 나오고 뒤에는 *Psychologische Studien*으로 이름이 바뀌짐) 그의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자들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험들이 오후에서 저녁, 특히 저녁때에 이루어졌던 것이다(塚原, 1920).

1902년 경에 이 실험실에 室員은 약 10여명(10명에서 12명 사이)이 있었는데 독일인보다도 외국인이 많았다. 외국인으로는 소련인, 폴란드인, 이태리인, 미국인, 영국인(Spearman), 그리고 일본인들이 室員으로 있었다. 분트의 실험실은 이런 의미에서 세계의 학생이 와서 배우는 곳이었으며 세계의 여러나라 학생과 방문객들이

들었던 그의 강의와 함께 Leipzig 大學校를 心理學의 세계 제일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Leipzig가 이렇게 된 것은 분트의 심리학 연구소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트 그 한 사람의 활동과 명성에 힘입은 것이었다(塚原, 1920, p.380).

쓰까하라가 다녀간지 약 10년 후인 1914년에는 분트의 실험실의 Mitglied의 수가 37명이나 되었고 외국인의 수는 여전히 많았다(野上, 1914).¹⁶⁾ 1902년 경의 10~12명에 비하면 연구실원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에는 실험실이 오후에만 사용된 것은 10년전이나 같았지만 시간이 약간 달라졌다. 1914년에는 실험실은 오후 2시에서 7시까지 5시간 동안만 열렸는데 10년전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열린것에 비하면 개관시간이 2시간 단축된 셈이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만 열었다. 1914년 무렵의 개관시간은 분트가 1910년에 자신이 지은 시간과 일치한다(Wundt, 1910).

Leipzig에서의 분트의 실험실(연구소) 설치년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다(車載浩, 1979; 趙明翰, 1979).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발언이 일본학자에게서도 1920년에 있어 여기에 소개하는데 이 말은 일본의 두번째 心理學者라고 일컬어지는 마쓰모토(松本)교수가 한 것이다.

그의 말을 여기에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헤름홀츠씨가 伯林大學의 교수가 되고 난지 4년 후에 분트는 萊府(Leipzig)大學에 초빙되어 처음으로 心理學實驗場을 설치하고(1875년), 萊府大學에 그 기원을 말하는 實驗心理學의 大成의 일을 맡아 하기 시작하였다(松本, 1920, p.360).”

III. 분트의 성격

여기서는 분트의 성격이라 하지만 분트를 흔히 말하는 심층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것은 아니고 그의 일상 행동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분트의

16) 노가미는 1916년 귀국보고(心理學硏究會, 1916, p.746)에서 1개 학기 동안 Leipzig의 심리실험실에 출입하는 학생수는 약 20명이며, 연구를 계속하는 자의 수는 10명내외라고 말하고 있다.

성격을 알아보려 한다. 분트는 그의 “성격” 상 누구와 깊이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자신의 생각의 깊은 곳을 잘 드러내든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 짐작된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저작(著作)에의 노력이 그의 다른 성격이 드러나게 할 여유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분트를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던 日本의 유학생들은 모두 그들이 분트를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접했을 뿐이고 그 밖의 장소에서 분트를 만난 일이 거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분트는 가끔 학생들 몇명씩을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했던 모양이다. 가령 1901년부터 3년간 분트에게서 배운 가와아이(川合貞一, 뒤에 慶大 교수)씨는 가네코(金子馬治, 뒤에 早稻田大 교수)씨와 이런 저녁식사모임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때 함께 초대된 손님은 극히 소수였다고 한다.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 웅변조로 힘있는 강의를 하고 농을 하여 학생들을 웃기는 여유를 보이는 분트였지만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한다. 가와아이는 이렇게 그의 느낌을 말했다: “분트 선생은 나에게서는 좀처럼 친근해지기 힘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생과 이야기를 할 때는 웬지 모르게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소위 春風을 맞이 하여 앉는다는 것과 같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선생은 어느 천인가 하면 말수가 적고 그렇게 쓸데없이 지껄어대는 일은 안 하셨만것 같습니다(川合, 1920, p. 382).” 이때 분트는 70세에 이른 노인이었다. 이런 인상은 젊은 손자벌의 학생이 더구나 일본과 같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란 젊은이로서 할아버지와 같은 나이의 교수인 분트를 대하는 것이니 비록 분트 자신이 잔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트 자신은 사적인 장면에서는 상당히 온화하고 여유있었던 것 같다. 앞서의 가와아이(川合) 등이 초대받은 저녁식사때에도 식사중과 식사후에 침착한 말씨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대부분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분트는 공적이고 학문적인 일에 있어서는 극히 냉정하고 정확했으나 사적인 일에는 비교적 융통성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품도 여유있고 때로는

쾌활하기까지 했던 모양이다. 일본인 자신들이 겪은 일은 아니나 분트의 일본인 제자들이 전하는 한 독일인 제자(분트 밑에서 당시 대학강사를 지내던 Brahm)가 1909년 Leipzig大學 500週年紀念會에 행한 축사속에 나와 있는 분트에 관한 평을 들어 보면 위에서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분트는 독일인 및 외국의 여러 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저 선량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수는 아니었다. 여러가지 점에서 그는 칸트와 극히 닮은 때가 있었다. 의무에 충실한 것, 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점, 그의 생활이나 수업시간, 연구실 방문, 산보의 시기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등은 세상이 잘 아는 일이다. 다만 칸트와는 달리 術學的인 모습이 전혀 없다. 누구나 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와의 대화에서 받는 인상은 강하고, 온화하고 쾌활하고 믿을 수 없으리만큼 풍부한 여러 다른 면을 가진 인품이었다. 자신있는 겸손이야말로 그의 性格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그가 스스로 겸손하게 나오면 대등한 사람으로 대우를 했으며, 대화(對話)나 시험에서도 겁을 먹게 되는 일은 좀체로 없다. 아부같은 것은 접근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차기 때문이다(桑田, 1920, p. 388).”

분트의 어린 시절이 꽤 외로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고독을 보였는데 이점은 그의 높은 자존심과 함께 두드러졌던 것 같다. 가와아이(川合)는 이렇게 평하고 있다. “선생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하고 있었었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생께서 學會 같은 곳에 얼굴을 보이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¹⁷⁾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孤獨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에게는 선생께서는 이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川合, 1920, p. 383).” 분트는 학자로서는 엄격하고 또 自負心도 높으며 그러면서도 겸손했던 것 같다. 가와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선

17) Warren (1921)는 분트가 동료들이 참석하는 학회나 회합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생은 學者의良心이 극히 강한 양보가 없는 분으로 어떤 외부적 권위도 인정 안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트선생의 저서 어느 것을 보아도 그저 Wilhelm Wundt 著라고만 쓰고 어떤 직함도 적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아차릴 수 있을 듯 합니다.¹⁸⁾ 저는 분트선생을 언제나 이렇게 보아왔습니다(川合, 1920, p. 383).” 분트가 강의를 하면서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이론적 적수에게는 그들의 입장을 통박하고 때로는 여지없이 우롱까지도 했다는 것을 앞서 보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구와다 같은 사람은 분트의 머리가 어디까지나 學者的인 머리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桑田, 1920, p. 389).

분트는 일을 위해서였던 단순히 습관에서 었든 규칙적인 일과를 보낸 것이지만 또한 상냥히 몸의 건강을 아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트에게서 배운 바 있는 철학자 이노우에(井上)는 그의 자택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을 때(1880년대 임) 현관을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 방에 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분트의 室内運動法이었는지 않았나 하고 추측하고 있다(井上, 1920, p. 461). 쓰까하라도 분트의 규칙적인 생활방식을 그가 “養生家” 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塚原, 1920, p. 374). 그의 산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유학생들 눈에는 대체로 분트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온 후의 생활이 社交와 같은 일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순수한 학자의 생활이었다고 보고 있으나(塚原, 1920, p. 374) 물론 일본학생들이 분트의 사생활을 잘 알 기회는 없었다.¹⁹⁾

- 18) 분트가 “자신을 강의실에서 Herr Geheimrat Professor Doctor Wilhelm Wundt 라고 지칭하였다”고 하는 것(趙明翰, 1979, p. 288)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흔히 그를 불렀다(Baldwin, 1921, p. 184 참조)는 것의 와전일 것이다.
- 19) 미국의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분트는 저녁에 가끔 음악회에도 나가고 시사문제에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Watson, 1963; Schultz, 1981). 공적도 거의 갖지 않았는데 34세때에 한번 뜻밖 에 Baden 議會에 Heidelberg의 대표로 선임된 적이 있으나 그는 이 명예직을 곧 사퇴했다(Watson, 1963). 여행도 거의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여름방학에는 스위스로, 그리고 봄방학에는 이탈리아로 가끔 여행했다 한다(Judd, 1921).

분트는 순수한 학자풍의 사람이었지만 전설적인 명칭한 교수와 같은 곳이라곤 없었고 극히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塚原, 1920, pp. 374-375).²⁰⁾

분트는 말년에 와서 第一次世界大戰중에 독일이 여러 나라들로 부터 戰爭을 일으킨 원흉이고 人道의 敵이라는 비난을 받자 여러 다른 학자들과 더불어 독일이 宣戰布告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음과 그런 전쟁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93인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野尻, 1920, p. 370). 그 무렵에 그는 독일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글도 썼는데 一次大戰中에 나온 “진정한 戰爭에 대하여”와 “國民과 그의 哲學”이 그런 글들이다. 이들 글을 쓴 것이 1914년 이후이므로 대략 85세 무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말년에 가서 불리한 전쟁에 휘말린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붓으로 국민을 지도하고 격려했던 것이다(桑田, 1920, p. 390). 분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분트가 그만큼 존경을 독일국민들로 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분트는 이미 1900년경 아직 70이 되기 이전부터 주변사람들로 부터 존경하는 말로 Alte Wundt 라는 호칭으로 불리었다(Birnbaum, 1920, p. 465). 그는 의학박사, 철학박사, 그리고 법학박사의 3개 학위를 지닌 데다가 아마도 이 무렵에 명예스러운 Geheimrat Professor란 직함을 얻었고, 같은 무렵(1902년에서 1905년 사이)에 Leipzig의 名譽市民(Ehrenbürger)으로 뽑혔던 것이다.²¹⁾

분트는 한 일본 유학생(井上)과 더불어 공자(孔子)

- 20) 분트는 연구실원이 실험기구를 마구 사용할 때와 같은 경우 화를 내고 곧장 말로 화풀이를 했고 한 때 그의 철학강의를 들던 청강생 몇이 음악회에 가고 싶어 강의가 끝나기 조금전에 강의실을 빠져 나가는 것을 알아 얼굴이 하얗게 되고 몸을 떨 정도로 분노를 표시했다(F. Angell, 1920).
- 21) 분트의 명성이 높아지자 1900년대초 무렵에는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학생과 독일학생들은 그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고 북도에는 연구실을 나와 강의실로 들어가는 분트의 모습을 보려는 세계각처에서 온 지식인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또 그 때 그의 싸인은 수집가들이 돈을 주고 사들이는 수집 대상이 되어 있었다(Arps, 1921).

의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는 공자에 대해 알고 있고 꼭 존경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功利主義에는 불찬성이라고 말했다 한다(井上, 1920, p. 461). 또 그는 Fechner 교수를 꼭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Fechner 紀念祭 때에 한 공개강연에 들어난다고 한다(金子, 1920, p. 443).²²⁾ 가네코(金子)는 Fechner의 學才와 분트의 學才사이에는 이상할 정도의 합치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의 理想哲學의 전체적 특징 또한 꼭 닮은데가 있다고 평하고 있다. 다만 Fechner가 좀더 直觀的이고 藝術的이었다고 보고 있다(金子, 1920, p. 443). 분트는 화려한 곳이 없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철두철미 독일風의 학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그가 실험심리학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제시할 당시에 다른 학자들도 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으나 이에 큰 소리로 맞서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계획한 바 전생애에 걸친 큰 포부를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桑田, 1920).

분트는 상당히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82세의 노령에도 노가미(野上)가 2년전 별세한 모도라(元良)교수, 일본의 첫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사람 죽다니 아깝다라고 말하고 마쓰모도(松本)교수의 이야기를 하니 까 그 사람은 1898년 이 실험실에 왔지 하고 말해 노가미는 놀랐다고 한다(野上, 1920).²³⁾ 분트는 또 박식한 것으로 비쳤다(野尻, 1920). 노가미는 분트가 어렸을 때 특별히 우수한 점은 없었으며 Heidelberg에서 Helmholtz의 助手로 있었을 때 數學과 物理學을 썩 잘하지 못해 重用되지 않았고 Helmholtz가 Heidelberg를 떠

날 때도 분트의 친구들이 후임으로 운동을 했으나 Kühne가 후임이 되었다는 G. S. Hall의 말을 전하고 있다(野上, 1914).²⁴⁾

분트의 성격이나 인품에 대하여 더 쓰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 학자들이 1920년에 쓴 것은 그들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한 것도 더러 있지만 분트의 업적이나 글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 평가한 것도 섞여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같은 것, 즉 분트와의 직접접촉이나 관찰에 입각하지 않은 분트의 인물평은 이 글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參 考 文 獻

- 鄭漢澤編著. 韓國心理學 60 年史. 서울: 博英社, 1983.
- 趙明翰. W. Wundt의 생애와 언어심리학. 韓國心理學會誌, 1979, 2, 286-292.
- 車載浩. 무엇의 100 周年인가. 心理學會報, 1979, 5월, 2-3.
- <日本文獻>(가나다順)
- 金子馬治. 분트教授에 대하여. 心理研究, 1920(大正9), 18, 442-446.
- 桑田芳藏. 분트의 人格과 그의 學風. 心理研究, 1920, 18, 386-396.
- 松本亦太郎. 분트教授와 歐米의 心理學界. 心理研究, 1920, 18, 359-369.
- 心理學研究會. 心理研究, 1916(大正5), 10, 744-747.
- 野尻精一. 분트교수의 訃音을 듣고. 心理研究, 1920, 18, 370-371.
- 野上俊夫. 라이프치히의 心理學實驗室. 心理研究, 1914, 5, 484-491.
- 井上折次郎. 분트教授의 回想. 心理研究, 1920, 18, 461-463.
- 24) G. Stanley Hall (1921)은 자신이 처음 1879년 Leipzig에 갔을때 분트가 그렇게 과학적이 아니라는 인상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이었고 Helmholtz는 분트가 조수로서 너무 정확성이 없다고 여겼다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22) 분트가 Fechner를 존경한 것은 여러 곳에서 들어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 지은 Leipzig대학의 심리실험실의 도서실 벽에는 분트의 浮彫위에 Fechner의 肖像이 걸려 있음을 보아도 짐작이 된다. 분트는 철학자로서는 Leibnitz를 좋아했던 것 같다(塚原, 1920, p.377).

23) 분트의 기억력이 꼭 늙어서까지 뛰어났다는 말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관한 말과 더불어 미국 제자들에게서도 자주 나오는 사실(Warren, 1921; Angell, 1921; Patrick, 1921; Judd, 1921)이다. 박학함을 특히 강조한 사람들도 있다(예: Arps, 1921; Tawney, 1921).

- 天野利武. 나의 心理學과 教育(前編): 半世紀의 回顧. 鄭漢澤編著, 韓國心理學 60 年史. 서울: 博英社, 1983.
- 川合貞一. 분트先生의 追憶. 心理研究, 1920, 18, 382-383.
- 塚原政次. 라이프지히와 분트教授. 心理研究, 1920, 18, 372-381.
- Angell, F.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64-166.
- Arps, G. F.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85-186.
- Baldwin, B. T.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84-185.
- Birnbaum, Wilhelm Wundt. *Berliner Tageblatt*, September 8, 1920. (Japanese translation appearing in 心理研究, 1920, 18, 464-465)
- Cattell, J. McK.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55-159.
- Cattell, J. McK. Early Psychological laboratories. *Science*, 1928, June, 543-548.
- Hall, G. S.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54-155.
- Judd, C. H.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73-178.
- Miller, G., and Buckhout, R. *Psychology: The science of mental life. 2nd ed.* New York: Harper, 1973.
- Pace, E. A.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59-162.
- Patrick, G. T. W.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70-173.
- Pintner, R.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86-188.
- Schultz, D.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3rd ed.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 Tawney, G. A.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78-181.
- Titchener, E. B. Wilhelm Wundt.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21, 32, 161-178. (a)
- Titchener, E. B.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62-163. (b)
- Warren, H. C.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66-169.
- Watson, R. I. *The great psychologist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63.
- Wundt, W. Das Institu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zu Leipzig. *Psychologischen Studien*, 1910, 5, 279-293.

(수정된 최종원고 접수 : 1983. 7. 26)

**Wilhelm Wundt and his psychological laboratory
as seen by his Japanese students**

Jae-Ho Cha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undt's class-room lectures, his laboratory at Leipzig, and Wundt as a person were described on accounts given by Japanese scholars who visited Wundt's psychological laboratory before his death in 1920. The articles which served as the source of the present article were written by 7 psychologists and 1 philosopher and were published, with one or two exceptions, in 1920 soon after Wundt's death but before the appearance of similar accounts by American psychologists. Corresponding accounts by American students of Wundt are noted in footnotes.